

PROGRAM

NOTE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 (1797-1828)

교향곡 8번 b단조, D. 759 '미완성' (1822)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는 짧고도 넉넉하지 못했던 삶 속에서 경이롭게도 교향곡, 서곡, 무대음악 등을 포함한 관현악곡, 피아노 삼중주, 현악 오중주, 15곡이 넘는 현악 사중주 등을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실내악곡, 바이올린 소나타, 20여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포함한 수많은 기악곡, 오페라, 미사곡, 합창곡, 그리고 600편이 넘는 가곡(lied) 등을 남겼다. 슈베르트는 평생 그토록 존경했던 베토벤(1770-1827)보다 27년을 늦게 태어났음에도 겨우 1년을 더 살았을 뿐이다. 그는 특히 19세기의 낭만주의와 접목시킨 '가곡'이란 장르를 한층 높은 수준의 위치로 끌어 올렸으며, 꺾이지 않는 창작 의욕 덕분에 우리는 교향곡 분야에서도 빼어난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초기 교향곡들에서는 당연히 빈의 거장들인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혹은 베토벤의 영향이 진하게 배어 있지만 이후의 교향곡들에서는 낭만주의 작품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대중적 인기도 많은 곡이 '미완성'으로 알려진 b단조 교향곡과 C장조 교향곡('그레이트'(Die Grosse, The Great))이다. 이 2곡의 작품만으로도 슈베르트의 이름은 교향곡 분야에서 당당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슈베르트는 두 작품의 실연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822년 당시 슈베르트는 우울한 조성인 b단조로 4악장짜리 교향곡을 작곡할 생각이었던 듯한데 2악장까지 밖에 쓰질 못했다. 그는 첫 두 악장만 쓰고 3악장 스케르초는 1페이지의 총보와 트리오의 절반까지를 피아노 스케치로 써 둔 채 방치해 버리고 만다. 1823년 슈베르트가 그라츠의 슈타이어마르크 음악협회(Musikverein für Steiermark) 명예회원으로 추대되었을 때 그 고마움의 표시로 협회의 이사이자 친구인 뢰텐브렌너(Anselm Hüttenbrenner)에게 이 두 악장의 교향곡을 보냈는데 어찌된 까닭인지 말그대로 그냥 잊혀 진다. 이후 서랍 속에 묻혀 있다 이 작품이 작곡된 지 42년, 그리고 슈베르트 사후 37년 만인 1865년 빈의 궁정지휘자 헤르베크(Johann von Herbeck)에게 발견된다. 초연은 악보가 발견된 그 해 12월 17일 헤르베크에 의해 빈에서 이루어져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한편 본 작품이 미완성인 것에 더불어, 슈베르트는 과거 7번으로 알려진 E장조(혹은 e단조) 교향곡 또한 완성하지 못했다. 지금은 b단조 교향곡이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익숙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긴 하지만 이런 이유들로 인해 슈베르트 교향곡 번호에 대한 혼란은 계속된다. 8번 '미완성', 9번 '그레이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C장조 교향곡이 1840년에 출판된 것에 따라 7번 '그레이트', 8번 '미완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국제 슈베르트 협회가 1965년부터 정리한 신 슈베르트 전집(Neue Schubert-Ausgabe)에서는 E장조 교향곡이 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번호를 박탈, 7번 '미완성' 및 8번 '그레이트'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슈베르트는 '미완성' 교향곡에서 통상적인 2관 편성에 3대의 트롬본을 추가시켜 고귀한 음색을 만들어낸다.